

나의 방식으로 네트워킹 시작하기

커피챗을 30번 넘게 하며 알게 된 것들



김성현 SungHyun Kim

witch.work

soakdma37@gmail.com

발표자



김성현

- “마녀”, 블로그 witch.work 운영중
- 9기+10기 커피챗 약 40번
- 알고리즘과 글쓰기를 좋아함
- 프론트엔드 개발자

발표 전에

- 왜 “마녀”인가?
- 너무나도 많이 받았던 질문



발표 전에

- 왜 “마녀”인가?
 - 개발 커뮤니티에서 닉네임을 지어야 했음
 - 좋아하던 브랜드 ‘마녀공장’으로 대충 지음
 - 다들 마녀라고 줄여 불러서 마녀가 됨
 - 시간이 지나니까 심볼도 컨셉도 생김

ma:nyo



발표 주요 내용

- 제가 네트워킹을 활용한 방식
 -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수단
 - 닮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배우는 수단
- 개인적인 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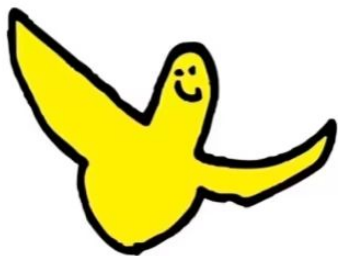


발표에서 바라는 것

- “네트워킹에서 이런 걸 얻을 수 있겠구나”
- “필요하면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발표의 목적이 아닌 것



(what it isn't)

- 네트워킹을 꼭 해야 한다는 압박

글또에 들어오는 목적

- 글을 쓰려고
- 정보를 얻으려고
- 다른 개발자들과 교류하려고



우리의 안식처



자기소개를 보자

- 수많은 “네트워킹/커피챗 하고 싶다” 선언
- 프론트 빌리지 **249명 중 131명(52.6%)**
- 이외에도 “긍정적인 영향 주고받기”등 간접적 언급 다수

고 있습니다. 어떤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같이 이야기 나누고 많은 걸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커피챗 언제나 환영입니다.

블로그: <https://witch.work>

GitHub: <https://github.com/witch-factory>

삶의 지도(9기 지원당시): <https://witch.work/posts/my-life-map>

저의 자기소개 일부

자기소개를 보자

- 수많은 “네트워킹/커피챗 하고 싶다” 선언
- 프론트 빌리지 249명 중 131명(52.6%)
- 이외에도 “긍정적인 영향 주고받기”등 간접적 언급 다수
- 그런데 뭘 위해서 네트워킹을 해야 하죠?



네트워킹: 인상을 남기는 수단

제게 네트워킹은

-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수단
- 닮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배우는 수단



저의 커피챗 공개 구인 시도

#1_자유로운담소 ▾

454 60 2 캔버스



김성현 오후 5:54

2023년 11월 27일 ▾

🔗 📄 📌 ⋮

자유로운 담소니까..커피챗 제안을 공개적으로 올려봐도 되겠죠?? 아니면 알려주세요...늘 이런 걸 해보고 싶다고 마음으로만 바랐는데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입니다. 블로그(<https://witch.work/>)를 운영하고 있고요(살의 지도도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프론트 1년차(x달차?)입니다. 글쎄에서 글도 쓰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나름 댓글도 많이 남겨 봤습니다. 하지만 이 400명이 넘는 분들 중에 제가 놓친 분들도 많을 테고 ~저도 제가 가진 것에 관심을 갖고 그걸 나눌 수 있는 분들과 많이 뵙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홍보(ㅋㅋ)도 해볼 겸 공개적으로 올려 봅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더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써보면 제가 나뉘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 2021년부터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약 170개의 글을 썼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그러면서 많은 발전을 했고 여러 생각이나 노하우 같은 것도 생겼어요. 요즘은 그래도 괜찮게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ㅋㅋㅋ 블로그 운영에 대한 걸 나눌 수 있어요.
- 뭐든 꽤나 깊이 파고들어 탐구하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알고리즘 대회준비도 오래 해왔고, 최신 기술도 좋지만 JS나 TS의 근본적인 부분을 까보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걸 좋아하는 분이 계시다면 더 즐겁게 서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 기계공학과 출신이고, 알고리즘 대회를 오랫동안 준비했고, 그리고 프론트엔드 개발자입니다. 이쪽을 아시는 분이 본다면 꽤 특이하다고 생각할 길이라고 생각해요. 남의 재밌는 이야기를 듣는 걸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런 경험이 궁금하시거나 뭔가 비슷한 부분을 겪고 있는 분이려면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없어도 상관없지만 바라는 게 있다면...

- 이렇게 있어 보이는 척 적었지만 사실 좀 재미없게 살았습니다...그래서 요즘은 취미를 가져보려 노력하고 있어요. 지난 주말엔 용기를 내서 밴드 공연에 가봤습니다. 제게 뭔가 새로운 콘텐츠를 이야기해주실 분 대환영입니다.
-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백엔드와 달리 프론트는 뭔가 정형화된 커리어 패스라는 게 좀 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1년차 프론트로서 앞으로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나누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분도 좋습니다!
- 사실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1입니다. 하지만 이 바닥에서 남는 건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기를 빨리 가면서서 열심히 다니려고 해요. 많이 만나주세요..

관심있는 분이 계시다면 DM을 주시거나, 이모지라도 달아주시면 제가 꼭 기억했다가 DM 드리겠습니다. 그럴 리 있나 싶긴 한데 만약 너무 많다면 글쎄가 끝나고라도 꼭 만나뵙겠습니다. 아무도 안해주면 쓸쓸하니 많이 와주세요!

👍 71 🍌 53 🍌 26 ❤️ 4 ☕ 2 🗨️

👤 최근 메시지

450명 채널에서

공개 커피챗 제안

“관심 있으면

이모지/DM 주세요”



이렇게 관심을 모을 기회는 흔치 않다

"soa**님은 평균보다 22점 낮아요"



바닥을 기는 Big 5 외향성 점수

시도의 결과

- 약 70개의 이모지가 눌림
- 메시지 하나만으로 큰 관심을 끄

#1_자유로운담소

2023년 11월 27일

김성현 오후 5:54

자유로운 담소니까..커피챗 제안을 공개적으로 올려봐도 되겠죠?? 아니면 알려주세요...늘 이런 걸 해보고 싶다고 마음으로는 바랐는데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입니다. 블로그(<https://witch.work/>)를 운영하고 있고요(삶의 지도도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프론트 1년차(x달차?)입니다. 글에서 글도 쓰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나를 댓글도 많이 남겨 바랍니다. 하지만 이 400명이 넘는 분들 중에 제가 놓친 분들도 많을 테고 ~저도 제가 가진 것에 관심을 갖고 그걸 나눌 수 있는 분들과 많이 뵙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홍보(ㅋㅋ)도 해볼 겸 공개적으로 올려 봅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더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써보면 제가 나눠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 2021년부터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약 170개의 글을 썼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그러면서 많은 발전을 했고 여러 생각이나 노하우 같은 것도 생겼어요. 요즘은 그래도 편하게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ㅋㅋ 블로그 운영에 대한 걸 나눌 수 있어요.
- 뭐든 꽤나 깊이 파고들어 탐구하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알고리즘 대회준비도 오래 해왔고, 최신 기술도 좋지만 JS나 TS의 근본적인 부분을 까보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걸 좋아하는 분이 계시다면 더 즐겁게 서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 기계공학과 출신이고, 알고리즘 대회를 오랫동안 준비했고, 그러고 프론트엔드 개발자입니다. 이쪽을 아시는 분이 본다면 꽤 특이하다고 생각할 길이라고 생각해요. 남의 재밌는 이야기를 듣는 걸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런 경험이 궁금하시거나 뭔가 비슷한 부분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없어도 상관없지만 바라는 게 있다면...

- 이렇게 있어 보이는 척 적었지만 사실 좀 재미없게 살았습니다..그래서 요즘은 취미를 가져보려 노력하고 있어요. 지난 주말엔 용기를 내서 밴드 공연에 가봤습니다. 제게 뭔가 새로운 콘텐츠를 이야기해주실 분 대환영입니다.
-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백엔드와 달리 프론트는 뭔가 정형화된 커리어 패스라는 게 좀 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1년차 프론트로서 앞으로에 대한 고민이 많습다. 이런 부분을 나누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분도 좋습니다!
- 사실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1입니다. 하지만 이 바닥에서 남는 건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기를 빨리 가면서 더 열심히 다니려고 해요. 많이 만나주세요..

관심있는 분이 계시다면 DM을 주시거나, 이모지라도 달아주시면 제가 꼭 기억했다가 DM 드리겠습니다. 그럴 리 있나 싶긴 한데 만약 너무 많다면 글도가 끝나고라도 꼭 만나뵙겠습니다. 아무도 안해주면 쓸쓸하니까 많이 와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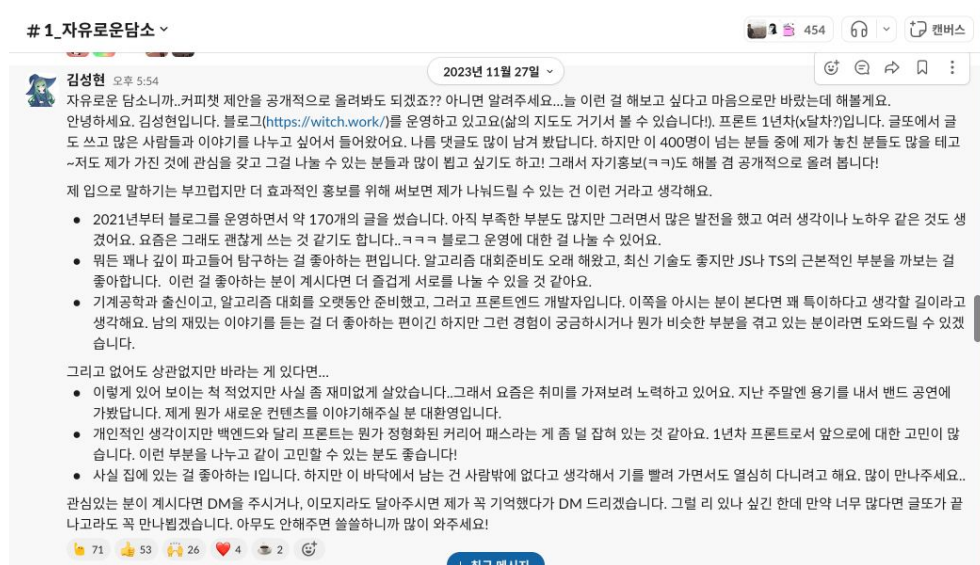
71 53 26 4 2

최근 메시지



시도의 결과

- 약 70개의 이모지가 눌림
- 그럼 몇 개의 DM이 왔을까?



커피챗 공개 구인의 결과

- 약 70개의 이모지가 눌림
- 그럼 몇 개의 DM이 왔을까?
 - 딱 2개의 DM이 왔다
 - 생각보다 더 적지 않나요?
 - 보통 먼저 연락하는 비율은 넉넉잡아도 10% 미만



인상 남기기

- 적극적으로 연락만 해도 **10%** 이상으로 돋보일 수 있다
- 상위 10%의 개발 실력을 갖기보다 쉽다!



이 발표도 마찬가지로

- 회사였다면 까마득한 선배였을 분들 앞에서 발표 중
- 아마도 내 리액트 코드보다는 적극적인 발표가 훨씬 인상적일 것



Performance

Values are estimated and may vary. The [performance score is calculated](#) directly from these metrics. [See calculator.](#)

▲ 0-49 ■ 50-89 ● 90-100



Tip - 상대가 바쁘지 않을까요?



Tip - 상대가 바쁘지 않을까요?

- 어차피 누구나 다 바쁘다
-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서 서로를 만나는 게 네트워킹



Tip - 상대가 바쁘지 않을까요?

- 대부분 자신을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내준다

일단은 성현님 닉네임이 마녀인 이유가 궁금해서 발표자료도 봤습니다(명쾌한 이유를 찾진 못했습니다...)

저는 전에 프로젝트를 하며 빠르게 기능 구현하는 것에 치중해 문제 해결 결과에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해결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기 어려웠고,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리액트 코어를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하며 동작원리를 공부하려고 노력하지만, 사과의 학장이 잘 안돼는데 성현님의 발표자료를 보며 저렇게 딥다이브를 시작 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관악구에 살고, 영등포구청 등 2호선 어디에서 커피숍 가겠습니다 시간 되실 때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집됨)

이 정도면
없는 시간도
내고 싶어짐



Tip - 좋은 인상을 이어갈 방법 고민하기

- 자기만의 이야기
- 흥미로운 별명이나 컨셉
- 재밌는 관심사(피크민?)
- 개발 실력
- 등등



Tip - 상대에 대한 탐구도 좋다

-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관심이 없음
- 나를 깊이 알아준 사람은 아주 진하게 남는다



Tip - 상대에 대한 탐구도 좋다

-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관심이 없음
- 나를 깊이 알아준 사람은 아주 진하게 남는다

- 블로그 첫 글부터 정주행하며, 재직 중인 회사 블로그에 게시된 프로젝트 관련 기술 글들을 찾아 읽었습니다.
-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 중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고민하며, 단방향적인 질문이 아닌 상호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 대화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꼭 여쭙고 싶은 질문 리스트를 작성하며 커피챗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네트워킹: 사람을 만나는 수단

제게 네트워킹은

-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수단
- **답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배우는 수단**



원래 제가 있던 환경



🕒 투표가 2024년 12월 15일 오후 2:35에 종료되었습니다.

solved.ac 티어

마스터	1명
루비	0명
✓ 다이아	10명
플래	4명
골드	4명
실버	2명
브론즈	0명
언레	0명

21명 참여 >



조금 변화를 주고 싶었다

- 코드 그만 보고 사람을 대하고 싶다
- 나는 프로덕트에 관심이 많아지고 싶다

조금 변화를 주고 싶었다

- 코드 그만 보고 사람을 대하고 싶다
- 나는 프로덕트에 관심이 많아지고 싶다
- 좀 더 재밌게 살고 싶다



그럼 닥고 싶은 사람과 커피챗을

저는 이런 분이 궁금해요

- 개발 외에 다른것에 시간을 많이 쏟았거나 관심이 많으신 분(비전공자/다른 직업 출신 환영)
- 아이디어 넘치고 만드는 거 좋아하는 메이커 기질 넘치시는 분
- 제가 신촌에 살고 있기에 2호선의 영등포구청~왕십리 정도 범위가 괜찮으신 분(튜링의사과는 가능)

저는 이런 걸 드릴 수 있을 거 같아요

- 컴공 알고리즘 학회 임원이었습니다. 전공자 환상 박살내드리기 가능(반대로 기인열전도 가능)
- 9기 때 큐레이션에 4번 선정됐었습니다. 제 노하우를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이야기 나누기

- 커피챗에서 생각보다 진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 커리어, 도메인, 이직, 행복, 연애, 결혼...
- 쉽게 엿보기 힘든 다른 사람의 세계를 볼 수 있다



열심히 이야기 나누기

- 커피챗에서 생각보다 진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 커리어, 도메인, 이직, 행복, 연애, 결혼...
- 쉽게 엿보기 힘든 다른 사람의 세계를 볼 수 있다
- 내가 닮고 싶은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많이 했던 질문들

- OO프로젝트는 어쩌다 하게 되셨어요?
- 왜 개발자가 되셨나요? 계속 개발하실 건가요?
- 돈이 엄청나게 많으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
- 삶에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거나 추구하고 싶은 게 있나요?
 - 혹은 “저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나요?
- 지금 당신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게 있나요?

더 훌륭한 개발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 전보다는 사람 대하는 것도 편해졌고
- 전보다는 좀 재밌는 게 많다



더 훌륭한 개발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 전보다는 사람 대하는 것도 편해졌고
- 전보다는 좀 재밌는 게 많다
- 약발이 떨어지면 또 그런 사람을 찾아서 DM을 하면 된다



물론 근본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soa**님은 평균보다 22점 낮아요"



여전히 바닥을 기는 Big 5 외향성 점수



흔한 저의 모습

하지만...

- 계속 좋은 사람들을 보고
- 그 꿈과 생각과 말투와 가치관과 인생을 보다 보면 언젠가는...



하지만...

- 계속 좋은 사람들을 보고
- 그 꿈과 생각과 말투와 가치관과 인생을 보다 보면 언젠가는...
- 지금도 이렇게 발표를 시도하게 됐잖아요?



Tip - 원하는 것을 생각하기

네트워킹 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저처럼 안 해도 됩니다

- 저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배우고 싶었을 뿐



어쩌면 여러분은

- 개발자로서 내실을 다져야 할 때일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은

- 개발자로서 내실을 다져야 할 때일 수도 있고
- 네트워킹에서 원하는 게 저와 다를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은

- 개발자로서 내실을 다져야 할 때일 수도 있고
- 네트워킹에서 원하는 게 저와 다를 수도 있고
- 별로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요
 - 원래 외향인이 아니라면 회의감이 들 수도 있다(경험담)



원하는 것을 생각하기

네트워킹 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그래서 사람에게 얻고 싶은 게 있다면



커피챗
하실래요?



정리

- 제가 네트워킹을 활용한 방식
 - 저에 대한 좋은 인상을 주는 수단
 - 닮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배우는 수단
- 개인적인 팁
 - 적극적인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호의적이다
 - 인상을 남길 만한 요소 생각해 보기
 - 네트워킹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 생각해 보기



정리

- 제가 네트워킹을 활용한 방식
 - 저에 대한 좋은 인상을 주는 수단
 - 닮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배우는 수단
- 개인적인 팁
 - 적극적인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호의적이다
 - 인상을 남길 만한 요소 생각해 보기
 - 네트워킹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 생각해 보기

